

# 언론 사람

2018  
vol.216

## 06

04

인터뷰

전길남 KAIST 명예교수

09

트렌드, 트렌드, 트렌드!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밀레니얼 세대의 2가지 특징

12

건축이 아름다운 미술관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 이스티클랄 거리의 소녀 악사(樂士)

이stanbul 택심 광장 옆 이스티클랄 거리는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로 붐비는  
우리의 명동과 같은 번화가다.

한 소녀 악사가 거리 한 편에서  
아코디언을 연주하고 있다.

꽃송이 왕관으로 치장하고  
붉은 아코디언을 멘 소녀 악사.

선율은 비록 조악하지만  
모금통을 놓고 연주하는 모습이  
제법 당당하다.

깊은 눈매의 어린 악사는  
살짝 미소 지으며  
회색빛 도시의 오후 길목을 붉게 물들인다.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터키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나라다.

이곳 사람들은 역사적 뿌리가  
한국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우리나라를 형제 나라로 대한다.  
6·25 전쟁 때는 많은 군인들이 참전했다.

자부심도 강하다.  
옛 투르크 제국의 전성기를 생각해보라.

새삼 형제의 나라에서 듣는  
꼬마 아코디언리스트 연주가 달리 들린다.

여행자는 고단한 발걸음을 멈추고  
이국땅 골목에서 잠깐 휴식을 취한다.



# CONTENTS

2018 June  
Vol.216



언론+



사람+

**02 Close-Up**  
이스티클랄 거리의  
소녀 약사(藥士)

**04 인터뷰**  
전길남 KAIST 명예교수

**14 NEWS**  
위원동정 | 위원회 뉴스

**06 빅데이터 읽어주는 기자**  
네이버의 뉴스 권력과  
나비효과

**07 언론법 이모저모**  
익명보도의 위업

**08 드라마 속 숨은 이야기**  
드라마 속 변호사

**09 트렌드, 트렌드, 트렌드!**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밀레니얼 세대의 2가지 특징

**10 세상읽기**  
봄날은 간다

**11 푸드텔링**  
6·25 전쟁과 음식문화

**12 건축이 아름다운 미술관**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15 따뜻한 아이디어**

발행인 양인석 | 편집인 권오근 | 발행일 2018년 6월 1일 |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 02-397-3114 F. 02-397-3069)

구독신청 T. 02-397-3082~4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 인터넷의 산 역사, 미래를 이야기하다

1982년 5월, 구미 전자기술연구소와 서울대학교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우리나라의 인터넷 역사는 시작되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네트워크 구축에 성공하며 인터넷 강국의 초석을 둔 역사적인 날이었다. 그 중심에 전길남 박사가 있었다. 전 박사는 이후 세계 50여 개국의 인터넷 개발에 도움을 주었으며, 지금도 세계적인 인터넷 전도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미디어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맞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인터넷의 아버지'를 넘어 '아시아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전길남 박사를 만나 인터넷 시대의 미래에 대해 들어보았다.

진행 | 남승균 홍보팀장    사진 | 홍보팀 최은진 차장

### Q | 한국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1979년 한국에 올 당시,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가발 수출만으로는 더 이상의 경제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당시 정부에서는 컴퓨터, 반도체 등의 국산화를 목표로 저와 같은 재외 한국 과학자를 초청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들어왔을 당시 환경은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난방비가 부족해 겨울에는 장갑을 끼고 연구해야 할 정도였지요. 그러나 국산 컴퓨터 개발에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 기술로 컴퓨터 개발에 성공했지요.

### Q |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 구축에 성공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1982년 구미와 서울을 연결할 때 실제로는 네트워크 구축보다 가동 프로그램인 유닉스(UNIX)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80년대에는 유닉스나 개인용 컴퓨터 OS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두가 정말 열심히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결국 전자기술연구소에서 유닉스 컴퓨터와 개인용 컴퓨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 Q | 대한민국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시는데요. 일생에 걸친 연구를 되돌아볼 때 '인터넷'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처음 연구를 진행할 당시에는 "사람과 정보의 연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네트워크를 통해 MIT 등 외국의 최신 연구 결과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당시의 목표였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네트워크의 목적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등장한 소셜미디어도 그런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지요. 다음으로 "모든 사물간의 연결", 즉 사물인터넷(IoT)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사물·공간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 Q | '4차 산업혁명'라는 단어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까요?

'산업'이 아니라 '혁명'에 방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겪는 '혁명의 시대'에 있습니다. 지금의 변화를 '산업'에만 국한한다면 언론이 영향을 받을 일도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매크로를 통한 여론 왜곡과 같은 문제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AI(인공지능) 기술이 더 발전해 누군가 기술을 악용

한다면, 이러한 피해는 아무도 모르게 이번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넓게 퍼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논의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현재는 미국과 유럽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제 학회에 가보면 한국 학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의 변화에 뒤처진다면 앞선 나라와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Q | 인터넷 기술발전과 더불어 가짜뉴스 유포, 개인정보 유출 등 사회적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페이스북과 구글의 영향력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한 나라의 선거결과를 좌지우지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는데, 이러한 미디어의 힘은 앞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원천 기술이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선 나라들의 사례와 경험을 참고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지요. 그러나 인터넷에 관해서는 우리가 일본보다도 앞선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가짜뉴스와 같은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과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Q | 미디어 환경변화와 더불어 기사복제와 확산으로 인한 피해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개선이나 제도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새로운 시대에 유효한 시스템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사건 중 인터넷 기반 매체의 비중이 70% 이상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그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혁명이 언론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의 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가 공존하지만, 기술발전으로 인해 언론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Q |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과제가 있으신지요.

저는 아시아의 발전 가능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인도네시아 등 여러 아시아 국가에 인터넷 기술을 보급해왔고, 20여개 국가에서 엘리트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통일



전길남  
KAIST  
명예교수

- (현) KAIST(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 명예교수
- 미국 UCLA 대학원 컴퓨터공학 박사
- KAIST 전산학과장
- NASA(미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 연구원

한국 시대의 국가 도메인 문제입니다. 저는 15년 전부터 통일 시대를 대비한 한국의 국가 도메인(.ka 또는 .ko)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언론사람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구를 하다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등산을 다녀오라고 합니다. 저도 산 정상에 올라 능선을 바라보는 순간 문제가 해결된 경험을 한 적이 많습니다. 자신의 한계까지 머리를 썼다면 산을 뛰어 오르며 그만큼 몸의 한계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머리를 쓴 만큼 몸과도 균형(밸런스)을 맞추라는 뜻이지요. 삶의 균형을 위해 건강한 도전의식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전길남 박사는 지난 2012년 월드와이드웹의 창시자 팀 버너스 리, 구글의 빈트 서프 부사장 등 세계적인 인터넷의 선각자들과 함께 인터넷 명예의 전당(Global Connector)에 헌액되었다. [출처] ISOC(Internet Society) 인터넷 명예의 전당(Internet Hall of Fame) (<https://internethalloffame.org>)

# 네이버의 뉴스 권력과 나비효과

김양순 | KBS 디지털뉴스팀장



뉴스가 이따금 우리를 진부하거나 잘못된 결론으로 밀어 넣는 까닭은 무엇일까? 가장 주된 이유는 뉴스가 계속해서 여러 수단을 통해 엄청난 권위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뉴스거리를 판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알랭 드 보통/ 뉴스의 시대 중〉

알랭 드 보통은 종일 쏟아지는 뉴스를 탐닉하는 현대인들에게 “당신이 보고 있는 그 뉴스가 ‘뉴스’라고 판정한 사람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묻는다. 프랑스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다. 한국에서는 아마 “네이버”일 것이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가 던진 물컵이 한진그룹에 태풍을 몰고 온 것처럼,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에 대한 의혹에서 시작된 네이버 뉴스 댓글 조작이란 나비의 날갯짓은 “네이버”에게 태풍급으로 격상됐다. 그간 네이버의 뉴스 배열과 편집에 불만이 많았던 언론사들은 노골적으로 네이버 때리기에 나섰다.

한 언론사는 “나는 네이버의 하청 노동자다”라는 기사에서 자신이 쓰는 기사가 네이버 모바일 메인에 배열됐을 때 느껴지는 희열감과 그러지 못했을 때의 좌절감을 토로했다. 기실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비슷하다. 마트 납품업체들처럼 기자들도 네이버라는 매대의 좋은 자리에 꽂히길 소망하며, 왜 꽂히지 못했는지 곱씹는다.

지금껏 네이버는 스스로가 뉴스의 주인공이 된 사례가 별로 없었다. “네이버와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는 네이버가 배열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명제에 삼성보다 네이버가 위라는 말까지 돌았다. 삼성은 열심히 작업해야 자사 비판 기사를 내릴 수 있지만, 네이버는 안 꽂으면 그 만이기 때문이라는 거다. 네이버의 뉴스 편집은 절반은 기계적 알고리즘이, 절반은 사람이 담당한다. 과연 네이버를 까는 뉴스는 네이버가 안 꽂는 걸까?

5월 1일부터 20일까지 매일 네이버 모바일에서 많이 본 뉴스 데이터를 분석했다. 네이버 뉴스분류 기준인 사회, 경제, IT, 생활, 정치, 세계,

연예의 7개 주제별로 그날의 많이 본 랭킹 30개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날짜, 기사 제목, 언론사, 조회수의 데이터를 크롤링했다.

매일 210건씩 20일이니, 4,200개의 기사가 추출됐다. 이 가운데 네이버에 부정적인 기사들은 얼마나 들어있을까? 제목 검색으로 ‘네이버’를 검색어로 넣으니 모두 28개의 기사가 나온다. 같은 기간 ‘드루킹’을 검색어로 했을 때는 43개의 기사가 나왔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뉴스 서비스 개편 방안을 발표한 5월 9일을 전후해 18개의 기사가 〈많이 본 뉴스〉에 올랐다. 네이버의 발표를 예고하는 기사들과 발표 당일 팩트를 전달한 기사들, 그다음 날 네이버의 발표를 비판하는 기사들이었다.

일단 네이버가 네이버를 까는 기사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과 달랐다. 댓글 파문으로 시작된 네이버 비판 기사들은 전면적이진 않았지만, 많이 본 랭킹에는 꽤 올라 있었다.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 개선책을 발표한 날, 〈많이 본 뉴스〉 1위는 그간 네이버를 가장 많이 비판한 언론사가 차지하기도 했다. 순위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봤냐”의 문제인데, 조회수는 미미했다. 네이버 대책 발표일 해당 기사가 10만 명가량의 조회를 기록한 게 최대였다. 나머지 기사들은 조회수가 5천 건을 밑돌았다. 네이버가 IT 섹션 메인에 관련 기사를 배열했지만, 독자들의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얘기다. 반면 ‘드루킹’ 기사는 평균 조회수가 10만 건 이상이었다.

이쯤 되면 언론사들은 고민에 빠진다. 기껏 네이버가 저널리즘의 품질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해왔는데, 사실 네이버가 배열하지 않으면 독자들은 관심 없고 재미없는, 그러나 꼭 알아야 하는 기사를 안 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네이버가 아웃링크(언론사 페이지로 전환)로 기사를 전면 배열하겠다고 했을 때 99%의 언론사가 어물쩡한 데는 이런 맥락도 존재한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3분기부터 네이버 모바일앱 첫 화면에서 뉴스를 없애겠다고 했다. 이 변화는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인가. 

# 익명 보도의 위엄

김주연 | 변호사



얼마 전 유명 가수의 구원파 논란을 일게 한 기사를 보면서, 익명 보도의 남용으로 인해 익명 보도가 가진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구원파 신도(혹은 그 가족)며, 심지어 유명 가수가 종교 모임을 했던 동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모두가 익명으로 보도됐다. 이들을 익명 처리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또한 익명 보도를 하면서까지 해당 보도를 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도 모두 의문이었다.

기본적으로 취재원은 실명으로 보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경우 기사의 진실 여부에 대한 검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의 언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마이클 쉘슨(Michael Schudson)은 '뉴스 생산과정은 취재원에서 시작하며, 취재원은 저널리즘의 초고'라고 했다. 뉴스 보도에 있어 취재원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익명 보도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내부 비리 사건을 고발하는 기사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랬다. 이는 닉슨 대통령이 민주당 위원회 건물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 발각된 사건으로, 이 일로 닉슨 대통령이 결국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워싱턴포스트지의 워터게이트 사건 보도는 덤스로트라는 익명의 제보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30년이 지나 익명의 취재원은 마크 펠트 전 FBI 부국

장으로 밝혀졌다. 익명 보도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마크 펠트는 제보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워터게이트 사건은 결국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워싱턴포스트의 워터게이트 사건 보도는 익명 보도가 가진 힘과 무게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익명 보도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정권 때 청와대 내부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가 있었다. 해당 기사는 검찰로부터 내부 문건 유출자에 대한 압박을 받아, "취재원 보호 원칙을 깨지 않겠다. 취재원을 밝히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라고 하였고, 검찰은 내부 문건 유출자를 찾기 위해 해당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등 강제수사를 감행했다.

미국 등 외국의 경우 국가 안보나 개인에 대한 신체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이 아니면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것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는 취재원 비닉권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사가 형사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언론사도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의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 사건이 시발점이 되어 기자가 취재원에 대해 함구할 수 있는 권리인 취재원 비닉권의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지난 19대 국회에서 취재원 비닉권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입법되지는 못했다.

현재 우리나라 신문윤리실천요강에 따르면 기사는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한 밝혀야

하고,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 가치가 우선하는 경우에만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 지침은 강제성이 없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데다, 최근에는 익명 보도가 송사에 휘말릴 위험을 낮추고 취재원과의 관계 설정에도 이점이 있는 등의 이유로 점점 더 익명 보도를 선호하는 추세로 가는 듯하다.

이런 국면에서 뉴욕타임스가 최근에 도입했다는 내부 규정은 주목할 만하다. 뉴욕타임스는 익명 취재단에 전적으로 의존한 기사의 경우 편집국장, 부국장 등 핵심간부 세 명 중 한 명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때 담당부장은 왜 익명 취재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해당 기사에는 누가 익명을 허락했는지도 기록해 놓도록 하고 있다. 익명 취재원 사용을 허락한 사람에게도 강한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이다.

뉴욕타임스의 클라크 호이트(Clark Hoyt)는 익명 취재원 보도에 대하여 '언론의 생명이자 맹독'이라고 한 바 있다. 익명 보도는 사회 고발과 언론의 자유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생명이자 맹독인 익명 취재를 적절히 운용할 수 있어야지만, 익명 보도의 위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

## 드라마 속 변호사

유선주 | 드라마평론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 변호사나 로펌의 모습도 천차만별입니다. 근사한 슈트를 차려입고 부유한 고객만 상대하는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KBS <동네변호사 조들호>처럼 '생활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도 있습니다. SBS <신의 저울> 속의 '법무법인 신명'은 경제 관료와 결탁해 '로펌이 아닌 로비스트'로 불리기도 했고, SBS <굿닥터>의 로펌 '법무법인 태백'은 "법을 이용해서 사욕을 채우는 도적 법비(法匪)"라고도 불렸죠. 거대 로펌은 한국 사회의 병폐에 일정 부분 가담한 이익집단으로 지목되어 왔는데요.

SBS <풍문으로 들었소>는 베일에 싸인 특권층 로펌 집안의 내력을 들추고 풍자합니다. SBS <리멤버-아들의 전쟁>에는 옥탑에 사무실을 둔 '변두리 로펌'도 등장합니다. 한편, 로펌 배경의 미국 드라마 리메이크가 늘어나면서 변호사 드라마도 인간관계에 할애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JTBC <굿 와이프>나 최근 방영한 KBS <슈츠>가 그런 예죠.

법정을 무대로 한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눈을 가린 채로 양손에 저울과 칼을 든 정의의 여신 디케 상을 배경으로 검사와 변호사, 혹은 변호사와 변호사가 대립하는 모습이죠. <슈츠>는 시작부터 약간의 트릭을 씁니다. 대형 로펌 '강&함'의 에이스 변호사 최강석(장동건)은 어소시에이트 변호사 면접 때 조각상 하나를 꺼내놓습니다. 디케처럼 보이도록 눈을 천으로 가렸지만, 실은 기회의 신 카이로스입니다. 이 속임

수를 간파할 수 있는 면접자가 있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함이었죠. 돈이 필요해서 친구의 마약 거래를 돕다가 우연히 변호사 면접 자리에 뛰어난 고연우(박형식)가 이를 알아차렸습니다. 고연우는 카이로스를 알아본 눈썰미 덕분에 변호사가 될 기회를 얻었죠. 디케처럼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 재판으로 가기 전, 합의를 이끌어내는 변호사가 갖춰야 할 협상의 기술을 은유하는데 쓰입니다.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이득을 저울질해서 단칼에 협상을 마무리 짓는 분별력과 결단력을 나타냅니다. 드라마 속 변호사의 활약이라면 법정에서 열정적인 변론을 펼치는 모습이 익숙한데요, <슈츠>는 변호사들이 어떻게 협상을 성사시키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처럼 극 초반의 작은 에피소드는 이후 전개에 힌트가 되거나 전체를 함축하는 메시지를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3년 방영된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국선전담 변호사들과 그들이 맡는 사건을 통해 사법시스템의 절차와 구성요소가 어떤 이유로 현재의 꼴을 갖췄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짚어가는 드라마입니다. 국선전담 변호사 장해성(이보영)은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마음속 갈등이 있을 때면 법원의 회전문을 빙글빙글 도는 습관이 있습니다. 처음엔 틀에 박힌 변론만 하던 해성이 변론에 의지를 갖고 방법을 찾으려 골몰할수록 회전문을 도는 일도 찾아지죠. 또한 회전문은 어린 시절에 거짓

증언으로 누명을 썼다가 또 다른 사건의 증인이 되기도 하고, 피해자 가족의 입장이 되기도 하며, 다시 누명을 쓴 누군가를 변론하는 변호사로 옮겨가는 해성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어떤 법의 존재와 필요를 각각 다른 입장과 시점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거죠.

2014년 방영된 MBC <개과천선>은 의뢰인과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사고하는데 최적화된 변호사 김석주(김명민)가 사고로 기억상실이 된 후, 자신이 맡았던 일들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변호사인 그가 의뢰인을 위해 일한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드라마는 교묘한 법리와 이론을 세우고 활용하는 세부과정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나 모 건설사 인수전 등 실제 소송을 치밀한 조사와 취재를 거쳐 반영한 드라마이기도 하죠.

드라마 속 변호사의 자리는 내 편이길 바라는 기대 속의 조력자와, 나와 내 이익의 반대편에서 일하는 적대자를 오가곤 했습니다. 선과 악을 뚜렷하게 나누는 편이 보기엔 짜릿할 수 있지만 보편적 윤리나 가치관을 성찰하는 드라마는 쉬운 길 대신 오래 걸리는 복잡한 길을 갑니다. 법을 다루는 드라마가 역울한 주인공의 통쾌한 복수에 치우친 경향이 있는데요. 한참 생각하고, 또 한 번 내렸던 결론이나 판단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끄는 성실함이 좋은 드라마를 만듭니다. 🍌

#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밀레니얼 세대의 2가지 특징

박진수 | 대학내일20대연구소 수석연구원



노멀크러시, 소확행, 율로 등등 이른바 '요즘 것들'의 트렌드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트렌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왕성한 호기심과 콘텐츠 기획력,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무장한 20대 밀레니얼 세대의 트렌드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다. 유행과 새로운 시도에 가장 민감한 20대들의 트렌드는, 주류 트렌드로 진화할 가능성이 큰 후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20대는 SNS를 통해 수백, 수천 명과의 네트워크 속에서 다양한 화제의 뉴스와 인증사진을 빠른 시간 안에 전파하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로서 관심사를 트렌드로 확산/소비시키는 데 능수능란하다. 빠르게 변해가는 트렌드에 대한 감을 익히고, 앞으로 다가올 트렌드가 무엇인지 가능해 보기 위해 2018년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에게서 살펴볼 수 있는 마이크로 트렌드 2가지를 소개한다.

## 넓고 얇게 지식을 탐하다, **잡학피디아**

2017년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의 조사 결과, 독서공간을 제공하는 서점이나 북카페를 이용한 20대의 비율이 48.3%로 높게 나타났다.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맥주와 책이 결합해 '북맥'이라는 새로운 해시태그가 등장해 인증사진을 점령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틈틈이 다양한 분야의 지적 콘텐츠를 가볍게 소비하며 잡학 백과사전이 되고 싶어 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잡학피디아'라는 키워드로 정의할 수 있다.

〈알쓸신잡〉, 〈지대넓얏〉 등 이른바 리딩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 대한 20대의 반응은 뜨겁다. 과거 30~40대의 주 청취층을 보유했던 팟캐스트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 20대가 새로운 청취층으로 등장했다.



배달의 민족에서 개최한 치물리에 자격 시험 이벤트 홍보 이미지(2017.8)

'트레바리'와 같은 독서모임이 20~30대 대학생/직장인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하다. 즐겨 소비하던 콘텐츠에 약간의 잡학 지식이 가미된 지적 콘텐츠는 지식을 얻는 과정을 충분히 쉽고 만만하게 바꾸어 놓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본인과 맞는 분야를 발견하거나, 좋아하는 분야에서 '성공한 덕후'가 되는 것 자체를 하나의 대안 진로로 삼기도 한다. 이러한 20대를 겨냥한 이벤트로 '치물리에 자격시험'이 등장하기도 했다. 애정하는 치킨도 제대로 알고 먹겠다는 거다.

구글링, 스마트폰과 SNS, 해외연수/여행 등 다채로운 문화 경험을 채우며 성장해 온 밀레니얼 세대는 예전에 비해 문화적 감수성과 호기심이 훨씬 풍부하다. 글로벌 문화와 지식을 기호에 따라 소비하고, 탐닉하는 지식, 정보의 양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토록 활력적인 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새롭게 등장할 지식 콘텐츠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 불호까지 취향으로 존중하다, **싫증주의**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취향을 존중하기 위해 오이에 모자이크 처리하는 행위를 '오자이크'라고 부른다고 한다. 선호 영역뿐 아니라 불호의 영역도 자신있게 표현하고 존중받기 원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싫증주의'라는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다.

대학교 입학 초기 신입생들에게 강요하는 선배들의 '똥군기'가 싫다며 SNS에 고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길거리 전도를 거부하는 메시지를 담은 휴대폰 케이스나 카드를 제작하기도 한다. 오이만 뺀 비빔밥이나 김밥을 제공하는 식당은 개인의 취향을 존중받은 20대의 인증을 통해 추천 맛집이 되고 있다. 카카오톡도 지난해 말, 프로필 공개를 원치 않는 상대방을 지정해 프로필을 볼 수 없게 차단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과거 좋아하던 것을 표현하고 존중하던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는 싫어하는 것까지 '알아서 하지 말아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이른바 '취향 미분'의 시대다. 🍌

# 봄날은 간다

한기봉 | 경기중재부 중재위원

“시간에, 세월에 저항하는 인간에게 흘러가는 봄날은 처참한 것이다. 시간에 저항하는 인간에게 이만큼 잔인한 노래는 없다.”

우리 시대의 탁월한 번역문학가이자 소설가 이윤기(1947~2010)가 쓴 한 단편소설에 나오는 말이다. 그 노래가 이 글의 제목이다.

가장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한 노래, 가장 많은 시인이 읊은 시, 영화로 드라마로 뮤지컬로 연극으로 악극으로 심지어 미술(안창홍 시리즈)로도 영역을 넓혀 변주된 그 노래. 이맘때면 노래방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노래. “뽐~뽐~뽐~뽐” 네 번 높게 낮게 이어지는 전주만 들어도 가슴이 서늘해지는 노래. 두어 소절을 부를 때까지는 그 노래. 꽃그늘 아래서 꽃잎 띄운 술잔 앞에 놓고 적당히 낮술에 취해 뽐아대야 제격인 노래.

난다 간다 하는 당대의 수십 명 가수들이 자기만의 독창적 목소리로 절창했다. 나는 일흔을 바라보는 최백호 버전이 가장 좋다. 세월의 흐름이 물씬 느껴지는 호소력 짙은 음색, 끊어질 듯 말 듯 꺾으며 돌리며 가슴으로 토해내는 창법, 우수에 젖은 얼굴만큼이나 쓸쓸하게 읊조리다 한을 풀어 짓히는 포효. 그는 어느 가수보다도 청송맞게 이 노래를 해석한다. 조용필도 나훈아도 불렀지만 못 따라간다. 그와 많이 다른 느낌으로 한영애를 치켜세우는 사람도 적지 않다. 관조한 듯 조금은 건방지게, 나대듯이, 바람난 여자처럼 불려 젖힌다. 말로가 전제덕의 하모니카 연주에 실어 나지막이 재즈풍으로 부르는 것도 참 색다르다.

이 노래는 1954년 대포 소리 멧고 화약 냄새 찾아들 때 발표됐다. 우리 모두 지치고 뉘 놓고 있을 때였다. 손로원이 쓰고 박시춘이 곡을 붙여 백설희가 부른 이 노래 제목이 ‘봄날이 간다’가 아니고 ‘봄날은 간다’여서 나는 좋다.

2003년 문학계간지 <시인세계> 조사에서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1등으로 꼽혔다. 그래서 그런가. 내가 찾아본 것만 해도 20명이 넘는 시인이 이 노래 제목 그대로 시를 헌정했다. 시인 정일근은 ‘연분홍 치마가 휘날리더라, 그런 늙은 유행가가 흥얼거려진다는 것/내 생도 잔치의 파장처럼 시들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고 쓸쓸히 읊었다. 안도현은 ‘꽃잎과 꽃잎 사이 아무도 모르게/봄날이 가고 있다’고 했다.

영화를 빼놓을 수 없다. 개인적으로 최고의 멜로라고 생각하는 허진호 감독의 ‘봄날은 간다’(2001년). 그는 사랑 영화에 왜 이 제목을 빌려왔을까. 사랑은 봄과 같은 속성이다. 꽃이 핀 듯하더니 저버렸다. 영원한 건 없다. 그것이 사랑과 봄이 지닌 비극성이다. 사랑이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별은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에 대한 대답은 “우리 헤어져”다. 사랑의 영원성과 상투성은 평생을 부딪친다.

돌아보면 다 화무십일홍이요, 잔치도 끝나기 전에 꽃은 날린다. 우리는 모두 타인의 삶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구경꾼일 뿐이다(정일근). 기형도는 ‘봄날이 가면 그뿐’이라는 명문장을 남기고 스물아홉 이른 봄날에 떠났다.

결국은 혼자다. 봄은 가고 나는 남는다. 지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우리 곁에 머물지 않는다. 대숲에 이는 바람이 귀에 들리는 순간, 바람은 이미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다. 옷고름 씹어가며 성황당 길에 올라 양가슴 두드리며 알뜰한 그 맹세를 하릴없이 기다려도, 촛불처럼 짧은 사랑 내 한 몸 아낌없이 바치려 했어도, 봄날은 간다. 무심히 흘러간다. 사랑도 간다. 🍌



## 6·25 전쟁과 음식문화

이용재 | 음식평론가



전쟁은 인류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식생활도 예외일 수 없다. 생존을 위해 궁여지책으로 새로운 음식이 개발되는 것은 물론, 전후에는 사회발전에 따라 일종의 문화로 뿌리내린다. 영국의 대표 음식인 피시 앤 칩스도 1850년대 후반에 처음 등장했지만,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일상에 깊이 자리를 잡았다. 전장의 급박함 속에서 거의 대부분의 식량이 배급의 대상이었지만 생선과 감자만큼은 예외였기 때문이다.

올해는 6·25 전쟁 발발 68주년이다. 매년 이맘때면 지자체에서 당시의 음식을 맛보는 행사를 연다. 생존이라는 유일하고도 급박한 이유에서만 음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자는 취지다. 어떤 음식이 있을까? 일단 음식이라기보다 재료에 더 가까운 찐 감자가 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긴요한 구황작물로 자리매김한 감자는 6·25 전쟁에서도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밖에 밥을 뭉쳐 휴대성을 강화한 주먹밥이나 보릿가루 등에 썬이나 콩 등을 더해 만든 각종 개떡류나 보리등겨 수제비 등이 있다.

전후 새로운 식재료가 소개되거나 인구의 이동으로 유입된 다른 지역의 식문화와 맞물려 새로운 음식이 탄생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재료는 밀가루, 대표적인 음식은 국수를 들 수 있다. 전쟁이 끝나도 국토가 황폐화되어 정상적인 식량 생산이 불가능했으니, MSA-402조에 따라 미국의 잉여 농산물이 무상으로 공급되었다. 당시 낙동강 하류는 바다가 만나는 지역으로 물자가 모이는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했지만, 바닷바람 덕분에 국수를 자연건조시키기도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 이 두 요소가 맞물려 국수 식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했고, 정부가 주도한 분식 장려 운동에 힘입어 1970년대 부산의 구포와 밀양의 수산 일대는 국수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런 가운데 이북 피난민을 중심으로 밀면이라는 새로운 음식도 탄생했다. 한국 전쟁 당시 흥남철수 후 부산에 도착한 실향민들은 우암동과 당감동에 정착했는데, 당시 주된 식재료였던 밀가루로 고향에서 먹던 냉면을 재현한 것이 오늘날의 밀면으로 자리 잡았다. 밀가루와 전분을

3:1로 섞어 만든 밀면은 197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었다. 한편 밀가루의 도입과 더불어, 소다로 부풀린 빵에 침즙을 더해 만든 소다 침 빵도 전쟁의 고난 속에서 탄생한 음식이었다.

아바이 순대나 함흥냉면도 비슷한 기원을 통해 자리 잡았다. 속초 청호동은 6·25 전쟁 이전만 해도 사람이 거의 살지 않던 바닷가 땅이었다. 전쟁통에 이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은 잠시 기다리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고 집을 짓기도 어렵고 식수 확보도 쉽지 않은 모래사장에 임시로 정착했다. 그리고 같은 고향 출신끼리 모여 살며 신포마을 등의 집단촌을 이뤘다. 이들이 고향에서 먹던 순대를 재현한 것이 아바이 순대다. 돼지 대창에 돼지고기, 선지, 마늘, 된장 등을 버무려 채운 뒤 찌 만드는데, 대창으로 만들기 때문에 왕순대라고도 한다. 하지만 대창은 돼지에서 많이 나오는 부위가 아니다 보니 겨울의 명태, 여름의 오징어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에 속을 채워 순대를 만들었는데 후자만 대중 음식으로 남았다. 한편 함흥냉면은 북한의 감자 농매(녹말) 국수를 발전시켜 만든 음식으로, 실제로 함흥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부대찌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6·25 전쟁으로 인해 태어난 음식 가운데 가장 깊이 뿌리내려 대중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다. 하지만 잘 알려졌듯 부대찌개의 기원은 비참하고 서글프다. 6·25 직후 미군 부대에서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를 다시 끓여 시장 노점에서 팔았던 ‘꿀꿀이죽’이 그 시초이기 때문이다. 세월이 흐르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1970년대에 의정부, 동두천, 평택 등 미군부대 근처의 식당에서 햄이나 소시지 등의 고기 재료에 김치를 더해 끓여 팔면서 오늘날의 부대찌개로 자리 잡았다. 소시지나 햄을 끓여낸 맛과 김치의 얼큰한 맛이 어우러지면서 우연의 산물이라기엔 너무나도 조화된 맛을 보여준다. ‘부대찌개’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마땅한 대안도 없을뿐더러, 이름과 함께 그 맛도, 역사에 대한 기억도 날아가 버릴 수 있다. 



## 일평생 ‘심플, 심플’ 외치던 화가를 닮아 간결한 미감 뽐내는 ‘자연 속 미술관’

이영란 | 미술칼럼니스트 / 뉴스핌 편집위원

우리나라도 이제 전국 곳곳에서 박물관, 미술관을 어렵지 않게 마주칠 수 있습니다. 지난 1990년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 “10년 내 뮤지엄 1천 개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을 때만 해도 모두들 반신반의했더랬죠. 그런데 2018년 현재 박물관, 미술관 수가 1082개에 달합니다. 정부의 진흥책에 힘입어 다양한 뮤지엄들이 생겨났지요. 인구와 국토면적으로 볼 때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설립 목표에 맞게 잘 건립되고, 잘 운영되는 뮤지엄은 많지 않습니다. 출범 초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하나 곧 운영난을 호소하며 지지부진해지곤 합니다. 또 뮤지엄이라면 건물을 심미적인 면을 고려해 아름답고 쓸모있게 지어야 하는데 적은 비용으로 급하게 지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경기도

양주시가 건립한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관장 변종필)은 모범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건축부터 아름다운데다 전시와 연구, 교육도 짜임새있게 이뤄지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서울에서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해 가깝하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의 장욱진미술관은 오래전 젊은이들의 데이트 명소로, 카페촌으로 유명했던 옛 장흥유원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온갖 유흥과 위락시설이 넘쳐나다가 쇠락의 길로 접어든 유원지 일대를 양주시는 십여 년째 문화예술지구로 바뀌려는 중입니다. 메이저 화랑인 가나아트도 가족단위 문화체험공간인 ‘가나아트파크’를 조성했습니다.

양주시가 만든 777 창작스튜디오와 가나아트파크를 지나 백석 방향으로 조금 더 가

면 장욱진미술관을 알리는 매표소가 나오니다. 입장료 5천 원(성인, 청소년 및 어린이 1천 원)을 내면 미술관과 조각공원을 모두 관람할 수 있는데요, 조각공원부터 돌아보게 됩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과 구상조각계 거장 민복진 등 30여 작가의 다양한 조각 60점이 분수대를 중심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조각공원 곳곳에는 많은 입장객들이 화창한 계절을 만끽 중입니다. 조각 옆에서 인증샷을 찍는 가족들이 많군요. 각양각색의 조각을 음미한 후 실개천 위 구름다리를 건너면 언덕 위로 눈부시게 하얀 건축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미술가 장욱진(1917~1990)의 유화, 채색화, 벽화 등 460점을 소장한 장욱진미술관입니다.

미술관 건물은 장욱진 작품처럼 간결합니다.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한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자 했던 작가를 닮아 비정형의 건물입니다. “아, 양주에 이런 건축이 있었네!”라는 찬사가 나옵니다. 자연 속에서 흰 빛을 발산하는 미술관은 초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 같다고 할까요?

최-페레이라 건축이 설계한 미술관은 중정과 각각의 방이 지그재그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대지면적 6204㎡에 연면적 1852㎡, 지하 1층, 지상 2층의 미술관은 각층에 2개의 전시실이 날개처럼 펼쳐져 있고, 영상실과 강의실, 아카이브 라운지가 이어집니다. 미술관은 개관한 해(2014년)에 김수근 건축상을 수상했고 한국건축가협회가 선정하는 ‘올해의 베스트 7’에 뽑혔습니다, 또 영국의 공영방송 BBC의 ‘2014년 8대 신설 미술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BBC는 ‘장욱진미술관이 여러 겹의 매듭을 엮어놓은 것처럼 독특하다’고 평했습니다.

이 미술관 건축이 국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것은 사각과 삼각형이 기묘하게 겹쳐 있으면서 이를 아코디언처럼 연결한 독특함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현대의 미술관은 사각의 큐브로 짓는데 자유롭게 뻗어간 구조가 특이한 거죠. 또 장욱진미술관은 유리창이 크고 많습니다. 1, 2층 벽이 온통 유리로 환하게 트인 전시실도 3개나 됩니다. 전시작품에 몰입하기에는 밝은 공간이 때론 방해가 되곤 하지요. 그러나 자연과 하나가 되길 원했던 장욱진의 예술세계를 음미하기엔 그만입니다. 신록의 자연이 미술관 속으로 슬며시 들어와 있어 관람객의 만족도는 꽤 높습니다. 겨울에는 눈 내린 풍경을 미술관에서 감상할 수 있겠지요. 자연을 공간 속으로 불러들이는 ‘차경(借景)’의 묘미입니다. 미술관 중정에는 장욱진 그림에서 따온 나무 형상의 조각이 외롭게 세워져 있군요. 장욱진의 자화상인 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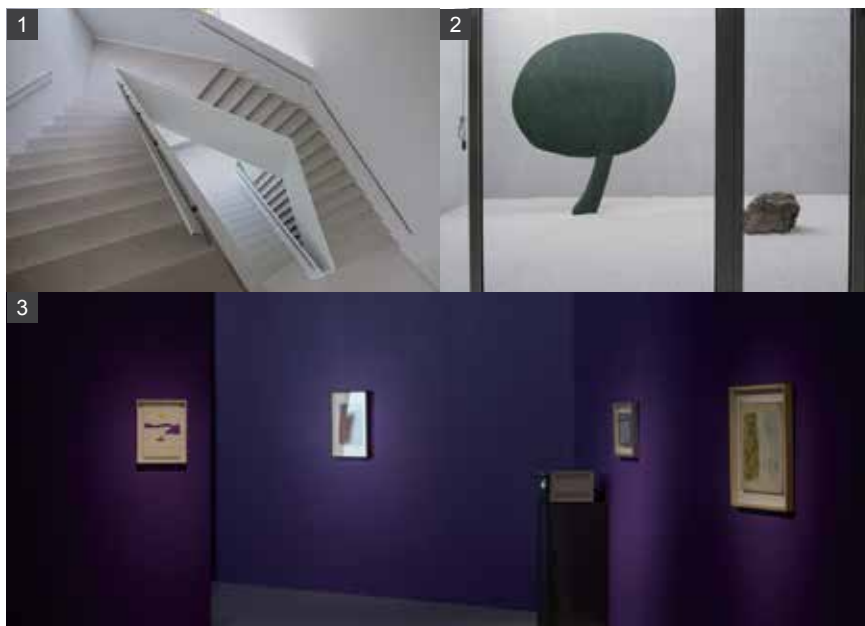
충남 연기군에서 지주의 아들로 태어난 장욱진은 김환기, 이중섭, 유영국과 함께 우리 미술을 대표하는 2세대 화가입니다. 어릴 적

부터 그림 재능이 남달랐는데, 까치를 온통 새까맣게 그리고 눈동자만 하얗게 표현해 최하점수를 받은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 그림의 독창성을 알아본 일본인 미술선생이 공모전에 출품토록 해 1등상을 받았다고요. 그때 부상으로 받은 유화물감으로 본격적인 유화 작업을 시작한 장욱진은 1939년 동경 제국 미술학교(현 무사시노 미대)에 입학했습니다. 한때 서울대 교수로 발탁됐으나 작업에 전념하기 위해 6년 만에 그만두고 덕소, 수안보, 용인 등지의 화실에 칩거하며 단순하면서도 압축적인 그림들을 선보였습니다.

세상의 명성과 직위도 마다하고, 사랑하는 가족과도 떨어져 살며 자연 속에서 고독한 예술가의 길을 걸은 거지요. 1990년 74세로 숨을 거두기까지 화가는 “나는 심플하다”라는 말을 되뇌며 어른과 아이 모두 좋아하는 진솔한 회화를 남겼습니다. 자그마한 화폭에 나무와 새, 집과 사람이 자유롭게 어우러진 그림을 보고 싶으라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장욱진은 스스로를 “그림을 그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평했는데요. 1974년 한 잡지에 “나의 지나간 40년은 오직 그림과 술밖에 모르고 살아온 인생이었다.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죽는 날까지 그림을 위해 다 써버려야겠다”라고 했습니다.

미술관 2층 한 칸에는 장욱진의 작업실이 재현돼 있습니다. 거장의 작업실 치고는 너무나 작고 소박합니다. 이렇게 작은 탁자에서 저렇게 오묘한 걸작들이 탄생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더 크고 화려한 공간을 원하지만 장욱진은 비좁은 공간에서 군더더기 없는 명징한 그림들을 창조해냈습니다. 천변만화하는 자연 속에 묻혀 그 세계를 화폭에 옮길 수만 있다면 다른 것들은 필요치 않다는 작가의 철학은 우리를 일깨웁니다. 그 달관의 경지를 곱씹으며 진실한 예술의 힘을 다시금 절감해 봅니다. 



1 전시공간 1층과 2층을 이어주는 계단. 계단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사진: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2 장욱진 그림 속에 등장하는 나무를 조각으로 만들어 중정에 설치했다. (사진: 서진수)  
3 살도 작품도 심플했던 장욱진의 회화가 전시실에 걸려 있다. (사진: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 위원동정

### ◆ 신임 중재위원 위촉(2018.5.1)

| 중재부     | 성명  | 주요 경력                                    |
|---------|-----|------------------------------------------|
| 서울제3중재부 | 심미선 | · (전)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위원 ·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 제주중재부   | 고창범 | · (전) 제민일보 논설위원 · (주) 제주풍력 상무            |

### ◆ 주정민 위원, 광주시선관위 주최 TV토론회 진행

주정민 위원(광주중재부,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5월 17일 광주선관위가 '6.13 지방선거, 정책선거 실현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TV 토론회에서 진행자로 참석했다.

### ◆ 이완수 위원, 〈언론과 포털, 동반자인가 적대자인가〉 토론회 주제발표

이완수 위원(경남중재부, 동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은 5월 28일 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개최한 〈언론과 포털, 동반자인가 적대자인가〉 토론회에서 '언론과 포털간 갈등 : 뉴스 콘텐츠 생산에서 유통'을 주제로 언론과 포털의 관계 재설정에 대해 발표했다.

## 위원회 뉴스

### ◆ 2017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시정권고사례집 발간

5월 31일 위원회가 작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언론조정중재 사건의 현황 및 주요 사례, 전체목록이 수록된 〈2017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과 시정권고 현황, 주요 시정권고 사례와 전체목록을 담은 〈2017년도 시정권고 사례집〉이 발간됐다.

기존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으로 통합발간되던 책을 조정중재와 시정권고 업무별로 구분하여 발간하였으며,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정보자료실 코너에서 전자책(E-BOOK) 및 PDF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 ◆ 위원회 일반직 신입직원 채용

위원회가 2018년도 제2차 일반직 신입직원 채용을 실시한다. 일반직 신입직원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되며, 임용 예정일은 8월 1일이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2018년도 제2차 변호사 연수 실시

위원회는 6월 22일 〈보도로 인한 인격권 분쟁 사례와 쟁점〉이라는 주제로 2018년도 제2차 변호사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초상권의 법적 성격 및 보호범위 등을 알아보고, 기타 인격권 침해 사례를 통해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살펴보는 강의로 구성된다. 강의 수료시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연수 4시간이 인정되며, 상세한 커리큘럼은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언론중재아카데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뜻한 아이디어

## Bell Cup & Vibering Sensor

### 배려담은 반짝 아이디어 '벨 컵' & '바이버링 센서'

청각장애인들은 길을 걷는 동안 어떻게 위험을 감지할까요? 시각장애인들은 뜨거운 물을 넘치지 않게 커피잔에 따를 수 있을까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감성은 메마르고 삶은 각박해진다고 하지만, 타인의 불편함을 걱정하는 착한 디자인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디자인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 시각장애인을 위한 '벨 컵' & '실로폰 컵'

시각장애인들은 컵에 물을 부을 때 손가락을 넣어 양을 측정한다고 하네요. 아주 뜨거운 물을 따를 때는 손가락을 댈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탄생한 제품이 바로 '벨 컵'과 '실로폰 컵'입니다.

먼저 '벨 컵'은 손잡이에 세 가지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누른 뒤 물을 부으면 정해진 양을 센서가 감지해 소리로 알려준다고 하네요. '실로폰 컵'도 마찬가지입니다. 컵에 물을 부을 때

발생하는 부력을 이용해 적당량의 물이 차면 손잡이의 센서가 감지해 소리로 알려준다고 하네요.

#### 청각장애인을 위한 '바이버링 센서'

청각장애인들이 뒤에서 들리는 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는 '바이버링 센서'(Vibering Sensor)도 유니버설 디자인의 좋은 예입니다. 디자이너 정광석 씨 등 3명이 만든 바이버링 센서는 반지 두 개와 시계 하나로 구성된 '세트 상품'입니다. 음성 센서와 진동 장치가 장착된 반지가 소리 신호를 받아들이면 시계 스크린에 그림과 문자가 결합된 정보가 나타납니다. 차 소리가 들리면 차 모양과 함께 '위험해요'(watch out)라는 정보를, 누군가 뒤에서 인사를 하면 '이름을 말하세요'(call your name)라고 알려준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제품들은 안타깝게도 아직은 아이디어만 존재하고 상품이 출시되지 않은 '컨셉 디자인'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려가 담긴 제품이 많이 개발된다면 세상은 더욱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다리

언론중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은 물론 포털뉴스까지

언론분쟁을 비용 없이, 신속·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